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활성화 토론회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5.08.11 11:21

지역 상권·주민 편의 증진 현장 소통 강화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활성화 토론회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주차타워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진부면장, 진부면 번영회, 상인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는 총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으며 190대 주차 공간과 전기차 충전기 10대를 갖추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운영을 맡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평일과 장날 이용률 차이, 할인처리 시스템 개선, 노상 주차 문제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제안된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차타워가 주민과 상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